

時空과 陰陽五行 - 한의학의 사고체계 -

白上龍

韓國韓醫學研究院

Abstract

Space-time and The theory of Eumyang-ohaeng - way of thinking in the standpoint of Oriental Medicine -

Back Sangryong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Eumyang-ohaeng[陰陽五行-Eumyang and five phases], as a standing rule that establishes the theory of Oriental medicine and origin of the oriental philosophy, it provides the perspective of the oriental medicine's outlook of the world.

Without knowing the Eumyang-ohaeng, we cannot discuss Oriental medicine, nor can we understand the oriental way of thinking.

Time and Space is what the human being created in order to explain the existence and change of matters. There is a common denominator between this universal concept of time and space and the theory of Eumyang-ohaeng. Consequently this paper investigates how characteristics of Eumyang-ohaeng and that of 'time and space' matches. Eumyang represents all matter and its characteristic, by comparison with each other spaces, and Ohaeng shows the change of matter with time gradually and sequancely. But this separation is only a separation by words, they really melt into one like two sides of a coin is actually just one coin. After all, the theory of Eumyang-ohaeng is a theory that leads us to realize time and space, matter and power are all just one.

So consequently, despite the difference in mass or size or longevity of matters, Eumyang-ohaeng pulls all matter into one body. It's why Eumyang-ohaeng is defined as the unified theory of time and space.

색인어 : Eumyang, Five phases, Time, Space, Theory of Eumyang and five phases, unified theory of time and space

I. 序論

陰陽五行은 한의학의 理論體系를 규정하는 준칙이자 東洋思想의 源流로서, 한의학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선이며 의식이다.

음양오행을 모르면 한의학을 논변할 수 없으며, 한의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동양의 제반 思考體系도 이해할 수 없다. 한의학에서는 의학의 大幹 즉, 생리와 병리, 經絡과 藥物의 屬性 및 작용, 診斷 및 治療의 原理 등 모든 체계를 음양오행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空間과 時間은 事物의 存在와 變化를 인지하고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意識이 만들어 낸 兩軸이다. 공간은 영역을 제공함으로써 사물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고, 시간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흐름을 통해 사물의 변화를 추동한다. 모든 사물은 공간 속에서 자신의 형태가 머무를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야 존재할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생성 및 소멸의 변화과정을 밟아 간다.

존재와 변화를 규정해주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보편적인 용어와 동양학의 세계 및 한의학을 관통하는 논리 체계인 음양오행의 관계를 추적하여, 한의학과 다른 학문 사이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공유가능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면, 思考와 用語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각 학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¹⁾ 정확한 이해에 근거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한의학 및 동양학의 주요 문헌을 통해 음양 및 오행의 논리적 특성이 時空과 어떻게 교통하고 있는 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本論

1. 氣의 존재와 변화가 陰陽五行이다.

음양과 오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氣의 성질 및 지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기는 존재의 實質이고 변화의 主體이자 動力으로서 음양오행을 대변해주기 때문이다.

1) 기는 존재의 실질이고 변화의 주체이다.

한의학을 비롯한 동양학에서는, 우리를 둘러싼 것 중 가장 큰 事物을 天地우주라고 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대표를 사람이라고 한다. 『白虎通義』에 天地의 생성근원에 대하여, 天地는 원기 즉, 으뜸인 氣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莊子』에서는 사람을 비롯한 사물 形體의 생성과 소멸이 곧 기의 취집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천지와 사람을 비롯한 모든 존재의 생성과 소멸은 모두 기의 취집과 환산을 통해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天地는 원기가 만든 것으로 모든 사물의 근원이며, ...”²⁾, “... 氣가 변화해서 형체가 있고, 형체가 변화해서 생명이 있으며, 지금 또 변화해서 죽음으로 간다”³⁾ “사람을 비롯한 모든 탄생은 기의 취집이니, 취집하면 생겨나고 흩어지면 없어진다.”⁴⁾

天地우주를 비롯한 천지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氣의 結集體이다. 이러한 기의 결집체들은 다시 자기 안의 기를 끌어내어 다른 사물과 접촉하고 교류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킨다. 이를 기의 교류 즉 氣交라고

1) The Function of Reason, Alfred North Whitehead, “All things work between limits. This law applies even to the speculative reason. The understand of a civilization is the understag of its limits.”

2) 小野澤精一·福永光司·山井涌 等, 李廣 譯, 氣의思想에서 재인용,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p. 5, 1990. “天地者, 元氣所生, 萬物之祖, ...”

3) 郭慶藩 輯, 莊子集釋 三·四冊, 中華書局, p. 615, 1961. “... 氣變而有形, 形變而有生, 今又變而之死”

4) 郭慶藩 輯, 上揭書, p. 733, “人之生也, 氣之聚也, 聚則爲生, 散則爲死”

하니, 사람을 비롯한 모든 존재들은 기교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람은 그 중의 精華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萬物의 靈長이라고 하며, 天地라는 大宇宙에 대비하여 小宇宙라고도 한다. 이에 대하여, 『素問·寶命全形論』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하늘이 덮고 땅이 실어서 萬物이 다 갖추어지지만 사람보다 귀한 것이 없다. 사람은 天地의 氣로써 생겨나고 四時의 法으로 삶을 이룬다”5)

天地로부터 氣를 받아들여려면 氣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氣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素問·六微旨大論』에서는 ‘器’이라고 하였다. 이를 사람에게서 찾는다면 身形 즉 형체라고 할 수 있다. 身形은 하나의 사람을 無限한 空間 속에서 整體性이 있는 有限한 個體로서 다른 事物로부터 구별지워 준다. 또한 天地의 變化를 따르면서도 하나의 개체로서 일정한 獨立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生命活動의 틀이기도 하다.

이러한 틀을 가짐으로써 사람은 天地의 氣交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가질 수 있으며,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氣의 出入을 조절할 수 있다6).

2) 기의 존재 및 변화는 음양오행이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事物은 천지의 氣를 이용해 자기의 형체를 이루고, 다시 천지의 氣를 받아들여 살아간다. 따라서 天地의 變化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아니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존재라 할 수 있으니, 사람이 자기의 生命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천지의 變化에 잘 적응하여야 한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천지의 생성과정에 대하여 기의 兩端인 陰氣와 陽氣와 聚集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의 일차적인 분화가 음기와 양기이며, 모든 기는 결국 음기 또는 양기로 귀속되어짐을 나타낸다. 그 대표적인 기가 하늘의 기인 천기와 대지의 기인 지기로, 천기는 양기에 지기는 음기에 속한다. 이 두가지 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천지의 생성과정과 그 기교를 살펴보자.

“陽을 쌓아서 하늘을 만들고 陰을 쌓아서 땅을 만드니, …故로 맑은 質을 가진 陽은 하늘을 이루고 濁한 質을 가진 陰은 땅을 이룬다. 地氣는 오르면서 구름으로 변하고 天氣는 내리면서 비로 변한다. 비는 地氣를 끌어내고 구름은 天氣를 끌어낸다…”8)

가볍고 맑은 氣는 陽氣이며, 무겁고 탁한 氣는 陰氣이다. 하늘은 陽氣가 모인 것이며, 땅은 陰氣가 모인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하늘과 땅은 각기 자기의 성질을 반영하는 氣를 내어 서로 交流하니, 하늘은 天氣 즉, 陽氣를 내어 地氣를 끌어올리고 땅은 地氣 즉, 陰氣를 내어 天氣를 끌어내린다. 이를 天地의 升降運動이라고 하며 또, 氣交라고 한다.

天地도 하나의 事物이다. 모든 事物은 서로 자기에게 필요한 氣를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氣를 배출함으로써

5) 洪元植, 上揭書, p. 97, “天覆地載, 萬物悉備, 莫貴於人, 人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
6) 洪元植, 上揭書, p. 244, “升降出入, 無器不有, 故氣者, 生化之宇, 器散則分之, 生化息矣.”
7) 生命活動은 자연으로부터 어느 정도 獨立성을 維持, 持續하려는 움직임이다. 따라서 죽어 있는 것은 獨立성을 유지할 수 없다. 獨立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자연의 변화에 그대로 順應하기 때문에 整體性을 가질 수 없다. 돌과 기운의 관계를 예로 들어보자. 물론 돌을 無生命體라고 규정짓는 데는 어느 정도 논란이 있겠지만, 이러한 논의는 철학자에게 넘기자. 氣溫은 계절에 따른 天地 기운의 상태를 대변한다. 이러한 기운의 변화는 약간의 時空間의 격차가 있지만, 그대로 돌의 기운을 반영한다. 즉, 돌은 기운의 변화를 그대로 수용하여 주위의 기온상태와 거의 一致한다. 그러나 生命體는 어떠한가? 아무리 微物이라 할지라도 돌처럼 곧바로 順應하지는 않고 자기의 生命을 保存할 수 있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자기의 틀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를 확보하여 獨立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生命活動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8) 洪元植, 上揭書, p. 23, “積陽爲天, 積陰爲地, …故清陽爲天, 濁陰爲地, 地氣上爲雲, 天氣下爲雲, 雨出地氣, 雲出天氣…”

자기의 整體性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天地는 서로 자기에게 필요한 氣를 氣交를 통해서 얻는다. 즉, 하늘과 땅은 氣交를 통해 계속 서로 陽氣와 陰氣를 보충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여 살아간다. 따라서 氣交는 天地의 生命活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과 땅이 각기 陰陽의 兩極으로서 위와 아래로 위치를 정한다음, 다시 서로 氣를 내어 交流하면서 천지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을 발생하고 소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인 四時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에 대하여 『莊子』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氣가 變化해서 形體를 두며, 形體가 變化해서 生命을 두고, 지금 또 變化해서 죽음으로 가니, 이는 春夏秋冬 四季節의 變化와 더불어 일어난다.”¹⁰⁾

뒤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사계절의 변화는 곧 五行之氣의 작용이다. 즉, 봄의 온난함은 木氣에 의해, 여름의 暑熱함은 火氣에 의해, 가을의 淸涼함은 金氣에 의해, 겨울의 寒冷함은 水氣에 의해, 그리고 이러한 기운들이 무리없이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土氣는 換節期를 주도한다. 그러므로 氣는 陰陽五行의 이치에 따라 천지를 생성함으로써 事物이 존재할 수 있는 空間을 이루고 동시에 氣交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주도한다. 즉 氣는 사물이 空間의 존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物質的인 성질과 함께 시간에 따라 변화를 주도하는 작용을 발휘하는 力動性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음양과 오행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한다.

음양오행은 음양과 오행으로 나뉜다. 음양과 오행은 서로 독립적이면서 또한 서로 의존적이다. 음양과 오행은 각기 그 自體로서 完整的 이론체계를 가지면서, 각각 하나의 설명체계로서 時·空間을 표현하는데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음양은 공간에서 대비를 통해 사물의 특성을 定立한다.

음양은 모든 사물들을 두 부류로 대비시켜 「음」 또는 「양」으로 歸納시켜서,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를 통해 개별 사물들의 특성을 들추어낸다. 따라서 「陰陽論」을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相對的關係論」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相對的關係라고 한 것은, 각 사물에게 부여되는 「음」 또는 「양」이라는 命名이 獨立的으로 존재하는 개개 사물 自體의 絕對性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相對로 등장하는 다른 사물과의 관계를 통해 한시적으로 정해지는 상대적 가변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그러므로 陽을 쌓아서 하늘을 이루고 陰을 쌓아서 땅을 이루는데, 陰은 고요하려 하고 陽은 움직이려 하여, 陽은 낳고 陰은 키우며, 陽은 죽이고 陰은 감추니, 陽은 氣[힘-力]를 化生하고 陰은 形[모습-體]을 이룬다.”¹¹⁾

9) 『素問·六微旨大論』에서, “氣之升降, 天地之更用也. …升已而降, 降者謂天, 降已而升, 升者謂地. 天氣下降, 氣流于地, 地氣上升, 氣騰于天, 故高下相召, 升降相因, 而變作矣(氣의 升降은 하늘과 땅이 交流하는 작용입니다. 上升이 마치면 下降하니 下降하는 것을 하늘이라고 하고, 下降이 마치면 上升하니, 上升하는 것을 땅이라고 합니다. 天氣가 下降하여 氣가 땅에서 流行하고 地氣가 上升하여 氣가 하늘에서 飛騰하니, 그러므로 위와 아래가 서로 부르고 上升과 下降이 서로 因果가 되어 변화가 일어납니다.)”라고 하고 있다.

10) 正統道藏·南華真經19, p. 15098. “氣變而有形, 形變而有生, 今又變而之死, 是相與爲春夏秋冬四時行也.”

11) 洪元植, 上揭書, p. 23, “故積陽爲天, 積陰爲地, 陰靜陽躁, 陽生陰長, 陽殺陰藏, 陽化氣, 陰成形.”

음기와 양기는 공간의 상부를 이루는 하늘과 하부를 이루는 땅을 형성하는 主體로서, 각기 動과 靜, 生과 長, 殺과 藏으로써 相對的 關係를 맺어, 서로 對立하고 支撐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動力과 形態를 化生하고 變化시킨다. 여기서 하늘은 곧 땅과 相對的 關係를 통해 陽으로 發顯하며, 動은 靜과의 관계를 통해 陽으로 發顯한다. 다시 말해서 땅이 없는 하늘이나, 움직이지 않는 고요함, 動力이 없는 形體는, 「陰陽論」의 논리구조상 存在不可하다.

이러한 이유로 『周易·繫辭傳』에서는 ‘한번 陰하고 한번 陽하는 것을 道’¹²⁾라고 하였다. 또, 『黃帝內經』에서는 陰陽을 生命活動 곧, 생명이 어떻게 存在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가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素問·生氣通天論』에서 ‘...삶의 근본은 陰陽에 바탕을 둔다’¹³⁾라고 하였으며, 『寶命全形論』에서 ‘사람이 태어나 몸을 두면 陰陽에서 떨어지지 않는다’¹⁴⁾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음양은 生命現狀의 內在的 原理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음」 또는 「양」이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인식의 근거로 삼는 것은 그 사물이 현재 드러내고 있는 현상이지 원리가 아니다. 원리는 현상의 이면에 숨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어떤 한 시점에서 상대적 대비의 결과로서 형상화되어 있는 殘像일 뿐이다. 음양이 이렇게 특정시

점의 특정현상으로서 사물의 형태를 표현하는 것은, 음양이 갖는 상대적이고 二次元的인 특성¹⁵⁾ 때문이다. 즉 음양은 사물과 사물이 서로 상대가 되어 대립적인 구도를 이루고 있는 어떤 한 상태로 고착된 靜的인 모습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반면에 大와 小, 안과 밖, 上升과 下降 등 現狀이나 운동의 일단면만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變化를 주도하는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한 감이 있다.

그러면 간단한 예로 풍선을 통해서 음양의 構造的 整體性을 살펴보자. 풍선의 외피인 고무는 안에 들어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고, 공기는 풍선의 外形을 유지해줌으로써 풍선이란 하나의 實體가 空間 속에서 존재하도록 한다. 여기서 外皮로서 고무는 空氣의 운동을 잡아 갈무리하는 「음」으로서, 공기는 외피를 밀어내 펼치는 「양」으로서 맞서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풍선이란 하나의 사물이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 둘 중에 하나만 없더라도 일정한 형태를 통해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 풍선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정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자기의 空間的인 形體를 유지하는 모든 것들은, 「양」의 躁動하여 확장하려는 動성과 「음」의 정지하여 축소하려는 靜성이 적절한 관계를 일정시간 동안 유지할 때 이루어진다. 사물이 자기를 유지하여 永續性을 가지려면, 그 사물의 「음」하고 「양」하는 작용이 서로 알맞은 조화

12) 備旨具解原本周易·下·繫辭上傳, 朝鮮圖書株式會社, 서울, p. 24, “一陰一陽之謂道”

13) 洪元植, 上揭書, p. 16, “...生之本, 本於陰陽”

14) 洪元植, 上揭書, p. 97, “人生有形, 不離陰陽”

15) 陰陽을 단순히 二次元的 概念이라고 보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는 陰陽의 無限한 分化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陰 안에 다시 陰과 陽이 있고, 그 안에 또 陰과 陽이 있어 무한히 分化하면, 이는 이미 二次元的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예로 무한한 길이를 갖는 실을 생각해보자. 陰陽論에서 陰과 陽을 규정하는 相對的 關係에 따라 실의 한쪽 끝(a)이 陰이라면, 다른 한쪽 끝은 저절로 陽(b)이 된다. 이 실의 양쪽 끝을 잡고 접으면, 다시 이전에 실의 중심이었던 곳은 다시 한쪽의 끝이 되어 陰 또는 陽으로 정해지고 원래의 兩端은 이에 대응하여 陰 또는 陽으로 정해진다. 이러한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면 陰 a는 무한한 陰(a1, a2, a3, a4, a5, a6, a7, a8, ...)으로 分化할 것이며, 陽 b도 無限한 (b1, b2, b3, b4, b5, b6, b7, b8, ...) 등으로 분화하면서, 실은 꼬이고 꼬여 헤아릴 수 없는 次元을 생산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아무리 반복한다 할지라도, 한 시점에서 陰 a의 상대로서 陽 b는 一對一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정한 대상과 一對一의 상대적 관계가 성립되는 그 순간만은, 變化를 정지시켜야 명확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고 空間的인 意味를 부여해야 한다.

를 이루면서, 일정시간 동안 변화의 정지를 유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다는 整體性을 구현하는 空間上의 位置的 존재를 표현하는데 더 적합하다. 이러한 공간상의 위치를 음양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음양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 力動的인 변화

그림-1-1. 空間의 上下에 대한 음양의 定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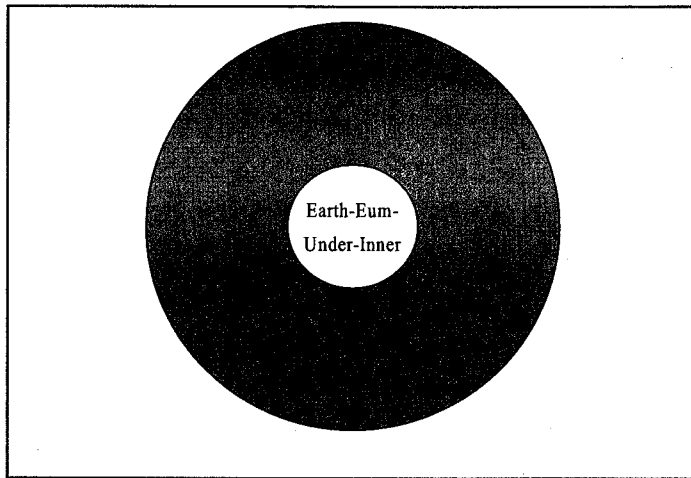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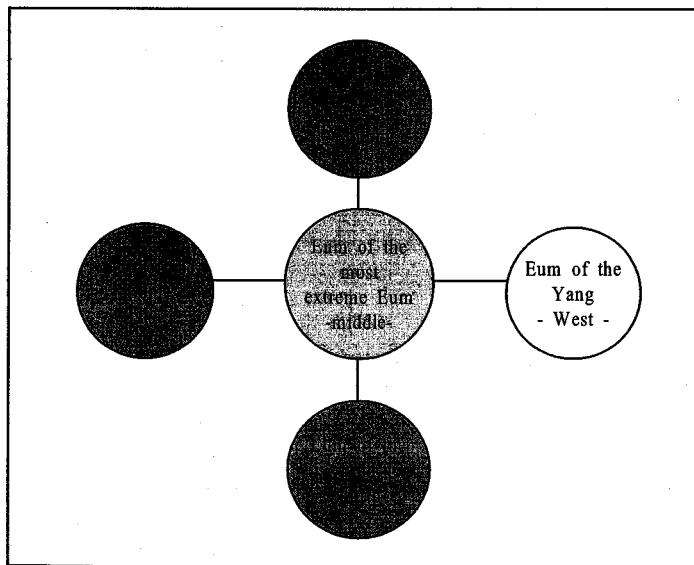


그림-1-2. 空間의 四方에 대한 음양의 定位



2) 오행은 시간의 흐름으로 사물의 변화를 조율한다.

그렇다면 陰陽 안에 숨어 있는 力動的 변화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時間의 흐름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 여기에 대한 단서는 『素問·至眞要大論』에서 「음」과 「양」의 漸進의 盛衰로 季節의 氣候變化를 논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무릇 氣의 發生과 變化는 衰盛이 다르다. 寒冷·暑熱·溫暖·清涼 등 성쇠의 변화는 4단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陽의 움직임은 溫에서 시작하여 暑에서 융성하며, 陰의 움직임은 清에서 시작하여 寒에서 융성하니, 봄·여름·가을·겨울이 각기 그 分數에 차이를 둔다”¹⁶⁾

陰陽의 漸進의 성쇠에 따라 일어나는 계절의 변화는 寒·熱·溫·涼으로 分化하여 나타나니, 봄의 溫暖, 여름의 暑熱, 가을의 清涼, 겨울의 寒冷 등이다. 여기서 「양」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溫暖과 暑熱이 봄과 여름의 기후상이며, 「음」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清涼과 寒冷이 가을과 겨울의 기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 계절의 기후는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융성과 쇠퇴를 반복한다. 즉 시간의 흐름을 따라 寒熱과 溫涼이 교차하면서 일정한 리듬을 띠고 있다. 이때 寒熱이 교차하는 시기로 계절 변화의 리듬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때를 보통 換節期라고 한다.

환절기는 寒熱溫涼이 서로 교차하는 시기로 계절의

기후변화가 가장 力動的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일년의 기후는 溫暖·暑熱·清涼·寒冷 등과 환절기의 변화를 합쳐 크게 다섯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素問·陰陽應象大論』과 『靈樞·五亂』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天地에는 四季節의 변화를 일으키는 五行이 있어, 만물이 그로써 生·長·收·藏하고, 기후는 그로써 寒·暑·燥·濕·風 등을 발생한다”¹⁷⁾, “五行은 순서가 있으며, 四季節은 구분이 있으니, ...”¹⁸⁾

앞의 「至眞要大論」에서 陰陽의 漸進의 盛衰를 통해 일어난다고 하는 기후의 변화를, 여기서는 다시 오행의 작용을 통해 일어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계절의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原動力을 다르게 표현하면, 봄기운을 木氣, 여름기운을 火氣, 가을기운을 金氣, 겨울기운을 水氣라고 하고, 환절기는 土氣가 주도하니, 곧 五行之氣의 흐름이다. 음양의 두가지 성질 중 변화를 일으키는 力動性이 오행 고유의 성질로 치환됨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럼으로써 음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성을 五行으로 넘겨주고, 空間的 位置와 現狀을 표현하는 역할만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¹⁹⁾. 이에 대하여 『素問·天元紀大論』에서 五行 중 土를 제외한 나머지 4행에 대하여 음양과 상관지어 논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水火라는 것은 陰陽의 徵兆이며, 左右라는 것은 陰陽의 道路이다”²⁰⁾

16) 洪元植, 上揭書, p. 303, “夫氣之生與其化, 衰盛異也. 寒暑溫涼盛衰之用, 其在四維. 故陽之動, 始於溫, 盛於暑, 陰之動, 始於清, 盛於寒, 春夏秋冬, 各差其分”

17) 洪元植, 上揭書, p. 23, “天有四時五行, 以生長收藏, 以生寒暑燥濕風”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p. 176, “五行有序, 四時有分,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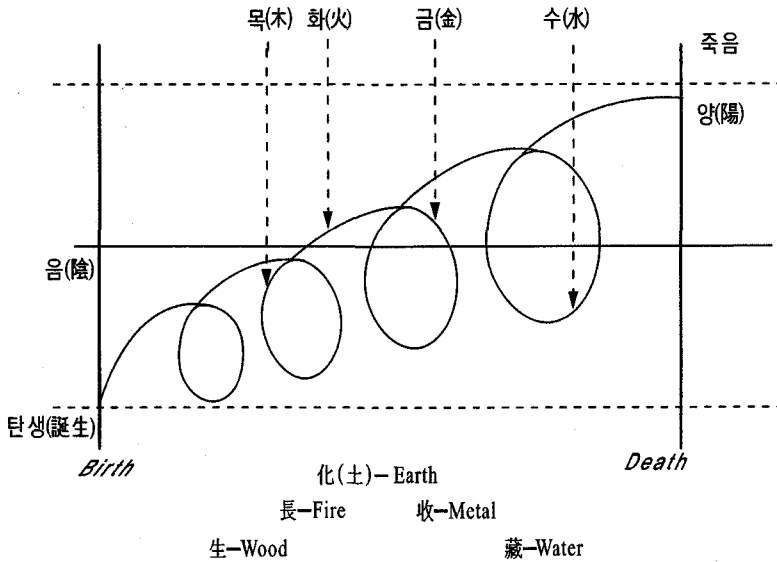
19) 陰陽이 靜態性을 주로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해서, 陰陽의 개념 속에 力動性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內在의 작용과 이로 인해 外現하는 現狀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상태를 표현하는 陰이라는 말 안에는 陰의인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 숨어 있다. 단지 陰陽이 五行에 비해 상태를 표현하는 데 보다 적절한 論理이자 用語라는 것이다. 독자에 따라서는 陰陽과 五行이 그 來源이 다른데 어떻게 서로 表裏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陰陽과 五行의 기원을 연구하는 여러 文獻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陰陽과 五行은 다른 流派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의학 原典인 『黃帝內經』에서는 起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陰陽과 五行을 서로 表裏로 묶어 쓰고 있으며, 다른 분야의 문헌도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인 예로 『周易』에 나오는 河圖와 洛書도 陰陽과 五行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

五行 중 水와 火만 거론한다면, 음양 二氣의 兩端을 점유하는 代置者로서 陰陽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 음양 二氣가 흐르는 道路 역할을 하는 木과 金이 水와 火의 중간에 위치하여 水와 火의 相互轉化를 매개하니, 木은 水로부터 火를 이끌어내고, 金은 火로부터 水를 이끌어냄으로써 力動性이 발현하면, 오행이라는 흐름이 출현한다. 그리고 土는 水와 火가 대치하고 木과 金이 升降할 때 中心軸으로서 나머지 4행이 어긋나지 않도록 中樞역할을 한다.

앞에서 음양의 力動性이 오행으로 置換되어 계절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렇게 五行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遊泳하는 사물 변화를 잘 말해주는 것은, 五行이 갖는 方向성과 交叉性 때문이다.

교차성과 방향성은 오행의 상대적 관계에 의해 맺어지는 相生·相克 관계에 의해 일어난다. 상생은 母行이 子行을 발생하는 원리로 끊임없는 生産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持續性を 유지시켜 주고, 상극은 克行이 被克行을 牽制함으로써 각 行의 持續性 즉 安定性を 빼앗아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土의 매개로 인해 相生의 連續的인 配列과 相克의 對時關係가 交叉하면서 비껴려 맺어지기 때문이다²¹⁾. 相生關係에 따라 母行과 子行은 先後로 連屬하여 位置하여 一方的이고 持續的인 變化를 추구하며, 相克은 서로 交叉하여 작용함으로써 持續性を 깨서 盛衰가 교차하고 방향이 바뀌는 단계적 전환을 유도한다.

그림-2. 時間의 흐름에 대한 오행의 변천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p. 233, “水火者, 陰陽之徵兆也, 左右者, 陰陽之道路也”

21) 음양은 음과 양 즉 짝수의 대립으로서, 자기에게 대응하는 일정한 짝을 통해 자기를 비추어봄으로써 정체성을 확인한다. 그러나 오행은 목·화·토·금·수 등 홀수로 이루어져 계속적으로 짝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끝없는 시간의 흐름과 호응할 수 있다.

계절의 변화와 이에 따른 草木의 生長收藏은 이러한 五行의 時間性과 變化過程을 잘 나타내준다. 봄은 五行 중에 木의 작용을 드러내며, 여름은 火의 작용, 가을은 金의 작용, 겨울은 水의 작용, 환절기는 土의 작용을 드러낸다. 草木은, 木의 뻗치는 힘을 받는 봄에는 生氣를 감싸고 있는 껍질을 깨고 싹을 틔어 밖으로 뻗쳐내며, 火의 펼치는 힘을 받는 여름에는 形體를 부풀린다. 金의 힘을 받는 가을에는 여름까지 外形의으로 자라고 부풀렸던 과정을 돌이켜 內實을 다지고 또, 열매를 맺음으로써 일의 결실을 거두기 시작한다. 水의 힘을 받는 겨울에는 가을에 거둔 결실을 감추어 굳건하게 하여 저장한다. 이 흐름속에서 性質이 다른 여러 힘들이 어떤 濾過過程을 거치지 않고 맞부딪힌다면 발전보다는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土가 작용하는 換節期에는 이러한 각 힘들이 조화롭게 교차하여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土의 힘이 중재한다.

그러므로 五行은 비퀴와 같이 土를 軸으로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굴러가도록 함으로써 사물의 時間的 變化를 주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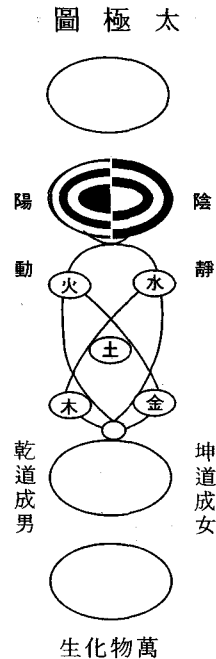
3. 음양오행은 시공을 포용한다.

음양이 공간에 위치한 事物의 존재와 현상을 나타내 준다면, 오행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물의 변화과정을 주도한다. 그러나 공간과 시간이 서로 분리할 수 없듯이 음양과 오행도 분리될 수 없다. 중국 宋代의 儒學者 周敦頤는 이러한 음양과 오행의 表裏關係를 『太極圖說』을 통해서 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太極이 움직여서 陽을 낳으며, 움직임이 지극하면 高요해진다. 高요함은 陰을 낳으며, 高요함이 지극

하면 다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그 뿌리가 되어 陰으로 나뉘고 陽으로 나뉘어 兩儀가 선다. 陽은 變動시키고 陰은 合致시켜서 水·火·木·金·土를 낳아, 五行之氣가 고르게 퍼짐에 四時가 돌아간다. 五行이 한가지로 陰陽이고 陰陽이 한가지로 太極이니, 太極은 無極에 바탕을 둔다. 五行의 낳음이 각기 그 性을 한결같이 하니, 無極의 眞諦[진체]와 陰陽·五行의 精氣가 묘하게 融合되어 凝結해서, 乾道는 男性을 이루고 坤道는 女性을 이루며, 陰陽의 두 기운이 交流·感應하여 萬物을 轉化시켜 낳으니, 萬物이 낳고 낳아서 變化가 다함이 없다...”²²⁾

그림-3. 周敦頤의 太極圖²³⁾



22) 金赫濟 校閱, 『古文眞寶』, p. 352, 明文堂. “...太極, 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相根, 分陰分陽, 兩位立焉. 陽變陰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 一陰陽也, 陰陽, 一太極也, 太極, 本無極也. 五行之生也, 各一其性, 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萬物 生而變化無窮焉...”

23) 이 그림은 周敦頤의 『太極圖說』에 나오는 太極圖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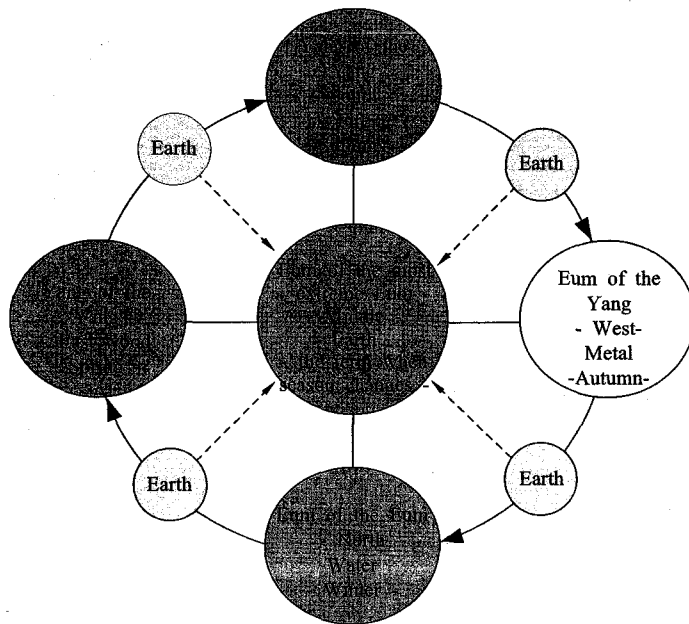
태극이 男性과 女性으로서 음양의 兩極(즉, 兩位)을 세우고, 이 양극의 음양 二氣를 서로 交感하게 함으로써 만물을 생성시키는데, 오행은 음양의 두 기운이 서로 交感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지배한다. 현상을 유지하려는 整體性和 변화를 일으키려는 力動性이 사물의 존재와 변화 즉 생존을 보장하는 양단이라면, 「음」과 「양」은 서로 대비되는 관계를 통해 개개 존재의 특성을 나타내고, 오행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물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다.

현상과 변화가 둘일 수는 없다. 현상은 변화의 靜止的 결과이며, 변화는 현상의 力動的 흐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양과 오행은 한 사물을 관찰하면서 보고 말하고자 한 것이 다를 뿐이다. 空間을 통해 실체로 나타나는 현상 안에 숨어 있는 力動性을 들추어 내 時間性을 부여하면, 陰陽은 오행적인 특성을 가지며, 변화를 상

대로써 표현하여 空間性을 부여하면, 오행은 음양적인 특성을 갖는다. 즉, 음양과 오행은 사물의 현상과 변화를 나타내는 주체로서, 보는 자의 시선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말하는 가를 나타내줄 뿐이다.

그러므로 음양과 오행은 서로 대치하여 표현할 수도 있으며, 더불어 하나의 틀 속에서 일치시킬 수도 있다. 공간 속의 현상을 나타내는 음양과 시간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오행의 변화를 하나의 틀 안에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동전의 양면처럼 보는 음양오행의 근원적인 성질에서 기인한다. 공간과 시간이 음양오행의 논리체계 안에서 함께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를 한의학의 용어를 통해 표현하면, 木은 陰中之陽이고, 火는 陽中之陽이며, 金은 陽中之陰이고, 水는 陰中之陰이며, 土는 陰中之至陰이 되니, 圖式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4. 음양과 오행의 시공간 습-圖



결론지으면, 음양은 공간 속에 존재하는 개개 사물의 外在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장점이 있으며, 오행은 시간에 따라 개개 사물들의 內在의 변화과정을 파악하는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표현상의 分離일 뿐, 한의학에서 음양과 오행은 동전의 양면처럼 세상과 사물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表裏가 되어 「陰陽五行論」으로 승화한다. 결국 음양오행론은 우주와 그 안에서 유행하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동력이 하나임을 통찰하고 있는 時空間 統一場理論이다.

IV. 結論

지금까지, 한의학의 이론적 기반이며 사고체계의 근간인 「陰陽五行論」과 時空間의 관계를 한의학 및 동양학의 주요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1. 천지의 기가 모이면 생명을 담는 형체를 이루고 이 기가 흩어져 형체가 없어지면 생명도 사라지니, 천지의 氣交 속에서 태어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사물은 자기 안에 천지의 이치인 음양오행을 담고 있다. 이러한 기의 聚散과 盛衰는 오행의 작

용을 통해 일어나고, 음양을 통해 드러난다.

2. 음양은 공간 속에 존재하는 개개 사물의 위치와 특성을 상호 대비시켜 나타내주며, 오행은 시간의 흐름을 타고 일어나는 변화과정을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표현상의 分離일 뿐, 陰陽과 五行은 陰陽五行論으로 승화되어, 時間과 空間, 물질과 동력이 하나임을 통찰하고 있다.

따라서 陰陽五行은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에 대하여 生命의 有無나 질량의 크기, 수명의 장단에 상관없이, 時空間의 一體化 속으로 끌어들이는 時空間의 統一場理論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郭慶藩 輯: 『莊子集釋 三·四冊』, 中華書局, 1961.
2. 管子·房玄齡 注, 『管子』, 上海古籍出版社, 1989, 上海.
3. 金赫濟 校閱, 『古文眞寶』, 明文堂, 서울.
4. 『備旨具解原本周易·下』, 朝鮮圖書株式會社, 서울.
5. 小野澤精一·福永光司·山井涌 等著, 李廣 譯: 『氣의 思想』,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0.
6. 莊子, 『正統道藏·南華真經19』, 法仁文化社 影印, 서울.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서울.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서울.
9. Alfred North Whitehead, 『The Function of Reason』.

